

성도의벗 10  
1976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킹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룸니

###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힙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앨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6년 10월 1일  
매월 1일 발행  
제12권 제10호  
통권 135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 화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 성도의 벗

1976년 10월호

## 목 차

### 이야기 및 기사 페이지

1. 간증을 얻는 방법 매리온 지 룸니 대관장단 제 2 보좌
6. 비회원 남편을 둔 자매에게 드리는 편지 캐롤 오스본 코올
8. 질의 응답
10. 물론 일지: 나를 기다리는 남편 메릴 엘 럽트롯
28. '76년 건강 관리 전시회

### 청소년 페이지

11. 엘리야의 영은 또한 평범한 자들을 위한 것이니 릿다 케이 호프만
22.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순결 스티브 질리 랜드
25. 결정 키이드 메릴

### 어린이 페이지

13.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 보이드 케이 패커
15. 열쇠
17. 통나무 오두막집 올리브 더블류 베트
18. 잠이 든 실리 캐디 스피어즈
20. 심심풀이

© 1976년  
재판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증을 얻는 방법

매리온 지 롬니

대관장단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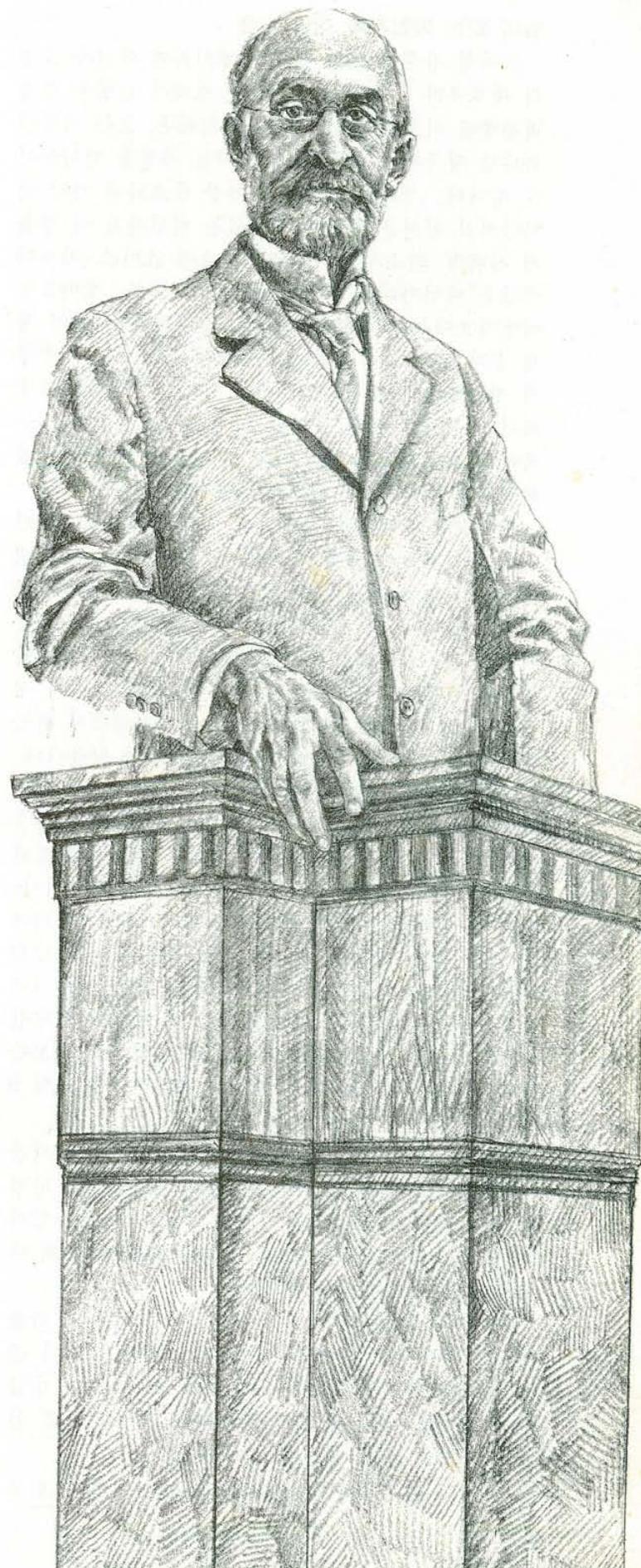
메일 퀸번 그림

사람들은 많은 사물에 대해 여러 형태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진리를 변함없이 살아 움직이는 확신을 가지고 간증드립니다. 그러한 간증의 일면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묘사한 “승영하신 분”인 하나님이 계시며 바로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정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의 또 다른 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인물로 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간증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예언자가 첫번째 시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을 얻는 데 아직 더 필요한 한 가지 요건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한 방법대로 몰몬경이 출현되었고 이 몰몬경은 모로나이 천사가 고대 기록이 수록된 금판을 예언자에게 넘겨 주어 그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것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간증을 얻으려는 사람은 또한 예언자가 하늘의 사자들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전에서 승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모든 원리, 의식 및 신권의 권능을 받았으며,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야말로 그러한 원리, 의식 및 신권의 권능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 있음을  
알듯이...”



## 살아 있는 예언자에 대한 간증

그러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언자 요셉의 때로부터 현재의 예언자이신 스펠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관리해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지녀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간증에서 가장 중요하나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살아있는 예언자가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의 예언자였던 요셉 스미스 이세와 푸같은 예언자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언자보다는 고대의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훨씬 쉽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죽은 예언자의 무덤을 쓰고 살아있는 예언자는 죽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을 꾸짖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23: 29-34참조)

살아있는 예언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언자는 예언자로 행동할 때에만 예언자”라고 한 요셉 스미스의 말에는 당황해 버리고 맙니다. (교회사 5: 265) 최근에 한 숙녀가 찾아와서 접견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녀는 예언자가 언제 예언자로서 말하는가를 알고싶어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또 한 젊은이가 신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해 대관장단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에 의문을 갖고 나를 찾아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한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문제로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믿읍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야기되고 행하여진 모든 것을 “확신에 찬 증거”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브리검 영 형제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이야기되고 행하여진 모든 것은 “확신에 찬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설교집 9: 149참조)

복음에 대해 깊은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문이 있으면 교리와 성약 9편에 나와 있는 시험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

(교리와 성약 9:8-9)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을만큼 겸손하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무엇이든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 옳은가를 주님께 여쭈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면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로써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게 됩니다.

확실한 간증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그러한 간증을 가짐으로써 그는 지식과 소망을 얻게 되고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여 이미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간증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 늘 엄숙한 느낌을 느끼곤 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끝낼 때면 그는 으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 있음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속주라는 것과 요셉 스미스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세상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 소위 몰몬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대회 보고, 1934년 10월 132페이지)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신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갖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간증은 학식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간증은 세상의 지식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증이 없는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을 연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생각해본 위대한 진리를 영의 인도 없이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예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참다운 하나님은 단 한분이시며 그분은 육체나 지체가 없이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선의를 소유하신 분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고, 신회의 구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성신의 일체이며,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분이다.”(성공회 신조 제39조)

이러한 주장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

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려하리라. 그러나 성령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고 다만 영적 존재시니라. (교리와 성약 130:22)

여기서 성령의 영감 없이 성경을 개역하려던 사람에게 있었던 다른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이사야가 처녀라고 했을 때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대의 번역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보라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영문 개역 성경 1952년판)

여러분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성하다고 믿지도 않으며 그래서 처녀라고 하든 젊은 여인이라고 하든 그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증은 성진의 권능으로 얻어 집니다. 간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모두 성령의 영감으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한 바와 같이 성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성신은 신회의 일원으로서 그가 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는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있던 당시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예언자의 가르침 223페이지참조)

### 성령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령이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음을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문득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는 확신을 얻었다는 것을 자신의 내부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롬니 자매가 나와 결혼하기 전 소녀 시절에 경험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는 한때 스테이크 주일학교 임원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임원으로서 그녀의 책임은 주일학교 분반에서 교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공과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을 본 예언자의 시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반에 아이다호 대학을 졸업한 비회원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대학 교육을 받고 세련된 이 아름다운 자매가 받아 들이지 않

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생각하자 그녀는 당황해졌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 시현의 이야기가 참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산란해져 그녀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공파는 못 가르치겠어요. 요셉 스미스에게 그려한 시현이 있었는지나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는 비웃고 조롱할 거에요.”

어머니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넌 예언자가 어떻게 시현을 보았는지 알지 않니?”

“네, 알아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았어요.”하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해 보려드나”하고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은 방으로 들어 가서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노스가 했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힘으로 확신에 찬 공파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녀는 마음 속에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요셉 스미스가 시현을 보았다는 것을 요셉 자신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본 것은 아니었읍니다만 확신만은 같았습니다. 그녀는 요셉 스미스가 기술한 이야기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알았으며 그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성신이 증거해 주었읍니다.

### 간증으로 인한 변화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간증이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옵니다. 나는 나에게 온 간증이 룸니 자매에게 온 것처럼 갑자기 왔는지는 기억할 수가 없읍니다. 내게 간증이 없었던 것도 기억할 수가 없읍니다. 나의 간증은 오래동안 서서히 강화되었으나 내가 믿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가는 전혀 기억할 수가 없읍니다. 간증은 갑자기 얻게되는 서서히 얻게 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의미있는 일을 해 줍니다. 사람이 간증을 갖고 나면 달라집니다. 선인이나 위인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달라졌읍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실 때가 가까워 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함께 죽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막14:3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멀리서 뒤따

르면서 예수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구경꾼들 가운데 앉아 있을 때, “한 비자가……주목하여 가로되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어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어 너도 그 당시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어 이는 걸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어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눅22: 56—62)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날 그와 다른 사도에게 성신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후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절름발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권의 권능을 행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 따라 절름발이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와서는 그 기적을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판원들은 그들의 추종자를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들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도 죽일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행4: 19: 20)

그렇다면 그는 간증을 갖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엘마와 바울의 경우도 간증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나의 부친은 나에게 간증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살아서 자라는 나무와 말라빠진 그루터기의 차이와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간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 이제까지 주어진 것보다 더 훌륭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

나는 내가 육신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기 위해 그분들 앞에  
선다해도 지금보다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의 가르침에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웃는지 내가 스스로 말합인지 알리라”(요7: 15—17) 이 말씀은 “우매한 행인”이라도 범할 필요가 없는 길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알려 줍니다.  
(사35: 8)

### 간증을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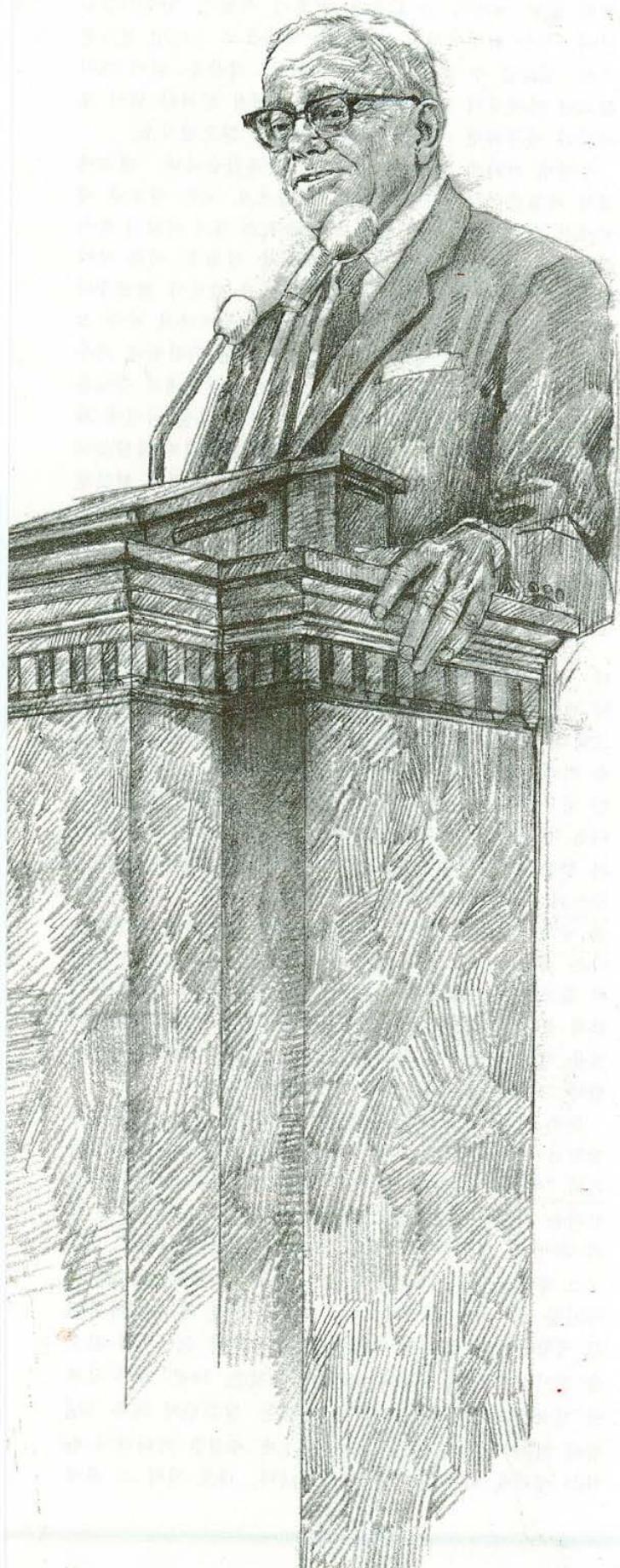
간증을 얻는 일에서 첫번째 단계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바 대로 계명에 순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예언자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및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현대의 여러 예언자의 가르침과 요셉 스미스의 생애를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어 그에 순종하십시오.

간증을 얻는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성실한 마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구하면 무엇에 관한 지식이든지 얻게 됨은 네 하나님이고 구속주이신 주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참으로 분명하도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교성8: 1—3)

누구든 참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 배운 것이 진리인가를 알고자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올리버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성신에 의해 마음 가



운데 증거를 얻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증거는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 증거는 그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안수에 의해 성신의 은사를 받고 이 생의 끝까지 복음의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때 영원히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앞서 열거한 모든 원리가 참되다는 간증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육신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기 위해 그분들 앞에 선다 해도 지금보다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真是 이러한 진리를 내게 알려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도 받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해결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당면한 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하루 종일, 일주일 또는 오랜 시간 동안 금식을 한 뒤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대한 간증에서 오는 위대한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성 131 : 6참조) 그러나 그는 외국어 지식이 없고 과학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학문을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은 훌륭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지식을 얻을 것을 권고합니다.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 가운데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인간이 무지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 뜻한 지식을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모든 원리와 그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간증과 더불어 오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많은 사람이 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지식을 얻고 생애의 끝까지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지식을 얻어 끝까지 충실한 자에게는 모든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 비회원 남편을 둔 자매에게 드리는 편지



캐롤 오스본 코울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이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었으며 속으로 무척 도움을 갈구하면서 것이 여러분의 경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임에서 한 마디의 말

이든, 좋은 생각이든, 계시든, 남편을 개종시킬 수 있는 열쇠를 찾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열쇠가 모두 제게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로 문을 열자 남편이 그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열쇠를 찾으려고 애쓰는 자매님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도움이 되어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참석하는 와드의 통계로 미루어 많은 자매가 교회 밖에서 결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다. 거기에 우선 깨달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회원이 될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비회원과 결혼을 한 뒤 남편을 교회에 인도하겠다고 했으나 통계를 보면 그렇지 못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교회 회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의 뜻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남편은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개종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현재의 남편 그대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만 전념한 나머지 우리는 남편이 가정을 돌보고 관리하는데서 오는 기쁨을 완전히 간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1971년 상호부조회 연차 대회에서 십 이사도 평의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남성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미묘한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흔히 여성은 남편을 교회의 활동으로 인도하나 이곳에서 남편이 빨리 자기를 이끌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성도의 빛, 1972년 7월호 12페이지)

대회에서 하신 패커 장로의 말씀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처해 있는 저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회원이 된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한 말씀을 크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 말씀을 읽어 보지 않으신 자매님이 계시면 교회 도서실에서 빌려다 읽어 보시거나 가능하면 사본을 만들어서 자주 읽으십시오.

우연한 기회에 또 다른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청소년 대회 때였습니다. 상향회 청년 회장으로 저는 청소년 대회에서 이를 밤을 거의 뜬눈으로 세우고 몹시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이를 저녁은 청소년 대회의 절정을 이룬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집에 돌아오자 할 일이 많았습니다만 일요일 아침까지도 몹시 피곤해서 늦게까지 계속 잤습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모녀를 위한 아침 반에 겨우 대서 갈 수 있는 만큼 늦잠을 자 남편과 아이들에게 아침을 차려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집을 나설 때 화가 나 있었으며 집에 돌아갔을 때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친 언사가 오고 갔습니다.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다른 세 모임에는 참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감독에게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모든 활동을 포기해야 할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일학교로 가 감독을 찾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단번에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 냈습니다. 저는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감독님이 제가 그렇게 나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사실이었습니다. 후에 알아낸 일이지만 감독은 전날 저녁에 제가 해임을 부탁하는 꿈을 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코울 자매여 한가지 약속을 주노니 자매께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하면 남편이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저에게 위로가 되었으나 나는 남편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주부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두 번째로 청녀 상향회 회장의 일을 설명한 우리는 화해를 하였고 나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 그 날의 나머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부분은 감독님이 “남편에게 가서 이러한 것을 하라고 하시오”라는 “이것은 꼭해야 한다고 말하시오”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독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해야 될 일 즉 복음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또 몇 년 전에 어느 자매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만일 자기가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결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4년 만에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결혼한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앞이 아찔했습니다. 나도 거의 그 자매

님이 기다리신 것 만큼 기다렸습니다. 제 남편은 우리가 결혼한지 13년 반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에게는 자녀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합당하게 준비했을 때 성신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교회에서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가 느낀 바와 행한 바를 실제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가 한 발자국 가까이 내딛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움이 되거나,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탐구하게 해주는 질문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런 방법을 직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요약하고 몇 가지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밖에서 결혼한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남편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남자에게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서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하십시오.

자신의 영적인 복리를 위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교성 98:12) 더해 노력할 때 복음을 감사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모든 가족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방어적인 자세를 갖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때로 의문을 가질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자는 자연히 그가 듣고 읽고 생각한 것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남편의 관점을 알려고 하고 그의 의견에 동의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동의할 수 없을 때라도 잠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 앉아 있으면 논쟁이나 격렬한 감정으로 얻게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습니다. 교회는 참되며 진리란 공격에 의해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회원과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를 가정에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혼 초에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음과 교회에서 신앙의 기초를 이루지 못하면 사소한 말다툼도 개인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의 음악 교사에게 자녀에게 찬송가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방법 같습니까만 제가 자연히 택해본 것인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딸 아이 로이가 피아노를 곧잘 치게되자 저는 피아노 선생님에게 찬송가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찬송가가 매일 집 안에서 들렸습니다. 남편은 찬송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난의 말을 잘했지만, 얼마 지나자 면도를 할 때나 밭에서 일을 할 때 귀에 익은 찬송가를 콧노래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허장으로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께서 교회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가 집에 있는 동안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 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교 활동을 이용하십시오. 남편이 교회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가

와드 회원과 사귀어서 교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서면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중의 효과를 거듭니다. 남편이 사교나 기타 사업상의 목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즐겁고 열성적인 태도를 보이십시오.

**남편을 가정에서 머리가 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러한 존경심을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가정의 밤을 갖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처음에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정규적으로 특별한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는 원리에는 동의했지만 그것에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의견대로 모임을 사회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당한 방법을 택해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차례가 되면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그 후로는 매 가정의 밤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이야기된 특별한 간증이나 신앙을 갖게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남편에게 들려 주십시오. 이 일은 남편에게 다소 생소한 것 같지만 이야기 하나, 간증 하나하나는 남편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일 그가 “그걸 믿을 수 없어” 혹은 “말도 안되는 소리아냐?” 혹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에 공박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벗을 구독하십시오.** 어떤 자녀가 있을 때는 그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훌륭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성도의 벗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감명을 받은 구절만을 읽게 하십시오. 십대의 자녀가 있으면 그들은 읽은 내용을 부담없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말을하고 언제 침묵을 지키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도록 성신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성신은 교회 회원으로서 확인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부여된 은사입니다. 그것은 생애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현명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신의 은사를 활용하면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는 남편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열쇠를 얻은 것 같습니다. 비회원과 결혼하게되면 궁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생애에서 훌륭한 것을 방해하지 만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경우에 적용했던 열쇠를 여러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공을 바랍니다. 남편이 결코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 해도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원리대로 생활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에 오게되는 기쁨과 행복은 그 자체가 큰 보상입니다.

복음안에서 맺어진 여러분의 자매로부터

캐롤 오스본 코울, 주부, 부트 몬타나 스테이크, 부트 이스트 와드 상호부조회 어머니 교육 교사 및 청녀 회장.

# 질의 응답

이곳에 소개된 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며 교회의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을 밝혀둔다.

로스 티 크리스찬슨  
브리감 영 대학교  
고고학 및 인류학 교수



아메리카 인디안은 모두 레이맨인입니까?

**주**님이 미대륙에서 성역을 베풀신 후 1세기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 대로 생활했기 때문에, “도적이나 살인자가 없었고 레이맨이라든가 혹은

로버트 지 모릿슨  
교회 교육 기구  
대학 교과 과정 작성자



저는 신비를 탐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한 이러한 질문이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예수는 이 세상 이외의 다른 세상을 창조했으며 또한 그는 그 세상의 구속주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와 성역을 보다 잘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신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 것은 또한 공론에 그치는 문제도 아닙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 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 .....를 모르면 그에게 영생이 없음을 알 것이다. 이는 다른 원리로는 영생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가르침 344페이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다른 종족의 차별이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한데 어리”(니사 15-17)가 되었습니다.

레이맨인의 초기와 말기

불행히도 주후 194년경 “소수의 무리가 모반하여 교회를 떠나 스스로 저들을 레이맨인이라 칭한 일이 있었을 뿐, 땅에는 평화가 계속되었으되 이 일로 하여 레이맨인이 다시 땅에 생기니라.”(니사 20) 처음에는 소수의 무리가 반역하였으나 이것이 차츰 커져 배도로 화해 버렸습니다.

곧 두 큰 민족간에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 레이맨인 족은 2세기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에 니파이인을 전멸시켰습니다.

원래의 레이맨인과는 다른 이들 레이맨인은 민족상으로 구분된 무리가 아니라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리였습니다. 이 레이맨인에는 레이맨인의 후손은 몰

알고 그들의 뜻을 깨닫고 그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 야말로 우리의 종교에서 최상의 탐구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 매리온 지 롬니장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고 그의 신성함에 대해 영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으로 창조자와 구속주로서의 주님임을 확실이 알 수 있습니다. (임프르먼트 이라, 1968, 11월호 48페이지)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아버지의 장자였습니다. 1916년에 발표한 성명문에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엘로힘의 영의 자녀 가운데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다른 모든 영은 그의 동생입니다.....”(제임스알 클라크 2세, 대관장단의 메시지, 북크래프트사 1971, 5:33) 그는 장자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아들이며 엄격히 모든 것에 순종하여 그 상속권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전세의 오랜 시간을 통해 그는 아브라함이 설명한 바와같이 “하나님 같은 분”되기까지 발전하고 진보한 분입니다. (아브라함 3:24)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으며 그는 태어나실 때 전세에서와 똑같은 상태(진분, 지위의 면에서)로 태어나셨다. 그는 태어나셨을 때나 그 이전에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었다.”(구원의 교리, 1:32) 그러한 전세의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지시아래 세상의 창조자와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예녹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이 지구와 같은

론 많은 니파이인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맨인이란 말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에는 최소한 다섯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1) 장자 레이맨으로부터 부계의 혈통을 이어 받은 사람 (2) 레이맨과 그의 시조의 추종자, 즉 레이맨인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으로부터 내려온 기독교 이전의 국가. (3) 주후 194년 경의 인종상의 무리가 아닌 종교상의 무리인 “레이맨인”.

레이맨인이란 말은 몰몬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4)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일곱 개의 혈통의 모든 후손. 즉 리하이 이스마엘 조랩의 전 후손. (그러나 레이맨인이란 말은 적어도 인종상의 의미가 아니고서는 이들 모두를 의미할 수는 없음) (5) 모든 아메리카 인디안.

니파이이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예언자 리하이는 주님께서는 리하이의 가족 만이 아니

수백만의 존재를 헤아릴 수 있다면 이는 주께서 지으신 창조의 숫자의 시작에 지나지 아니하리이다.” (모세7:30)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수 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는 아들 곧 나의 독생자를 시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 (모세1:33) 이 모든 세상에 관한 기록은 모세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가는 알려졌습니다. 요셉 스미스에게는 그 세상의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 외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아니합이라……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넣으신 아들 땔이라.” (교성 76:1, 24) 예언자는 이 구절을 그가 1843년에 발표한 시에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주는 하나님이시요 그의 생애는 끝이 없으시도다.  
그 외에는 인간에게 구세주도 없도다. 그는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시니 모든 세상은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지어졌도다.  
하늘의 운행 또한 그처럼 넓고

그 주민 또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도 많으니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인해 구원을 받는도다.  
또한 같은 진리와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넣으신 아들 땔들이로다.

(타임즈 앤드 시즌스4: 82-85)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예수께서 온 우주의 주이심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영역과 권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에

라 다른 사람도 미대륙으로 인도하여 올 것이라고 말했다. 10절부터 12절에서 리하이는 아들들에게 그들의 후손이 “불신앙에 혼들”리고 메시야를 거부할 때 다른 민족이 와서 그들의 땅을 취하고 대대로 피를 흘리며 그들을 쳐 훌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성스러운 기록에 따르면 이 배도는 주후 3, 4세기 경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의 종 리하이의 약속을 이루시어 그 후손에게 다른 종족을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과 광야에서 방황하는 여러 인디안이 쓰는 언어의 차이를 보면 이것이 분명해 집니다. 인디안의 조상이 구 대륙의 여러 다른 나라의 많은 민족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메리카 인디안이 레이맨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몰몬경은 그러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몇몇 말일정도가 연구한 것입니다.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 아래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모세1:33) 그리스도의 속죄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참으로 무한하며 무한한 세상에 적용된다.”

“그리스도의 창조적, 구속적 능력이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미치며 광활한 세상에까지 미치듯이 부활의 능력도 온 우주에 미친다. 지구에 사는 사람이나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부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부활은 다른 세상과 다른 은하계에도 적용된다. (몰몬 교리, 북크래프트사, 1966, 65, 642페이지)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예수의 우주적 성역의 전체적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와 구속주라는 점에서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이 지상에서 그가 베풀신 성역을 제외하고 그가 다른 세상이나 그 주민에게 하신 봉사와 그들과의 관계는 이 지구와 그 주민을 위해 하신 봉사와 조금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경전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우주의 주님이신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이 세상과 그 주민으로 더불어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예수께서 우주의 주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중언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구세주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주적인 것이요 그것은 곧 인간이 승영할 수 있는 유일한 계획임을 알고 있습니다.” (임프로먼트 이라 1968, 11월호 46-49페이지)

# 물론 일지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대로 사는 매일의 생활에서 얻는 갖가지 경험은 모든 말일성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모두가 그려한 체험담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은 일, 선권의 축복,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받은 영감, 교회 일을 하면서 받은 뜻깊은 보상 등 여러분의 간증을 더욱 굳게 해준 체험담이 있으면 교회의 다른 여러분들에게 들려 줍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번역 출판부 성도의 벗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나를 기다리는 남편 메릴 엘립트론

남편이 교통 사고로 죽은 후에 그토록 깊은 절망에 빠져 꾀로 위 하면서 그래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결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녀를 위해 살았으나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자 나에게 남은 것은 세 명의 아이와 6개월 후에 태어날 아기였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악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꿈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번잡한 거리를 걷는 그의 모습은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오, 난 아직 살아 있으.” 그때 나의 기쁨이 어떠했겠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려자 나는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고 다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수개월 동안 나는 여러 교회의 목사나 선교사의 잊은 방문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계시며 죽은 후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키려 했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내가 다시 남편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심지어는 내가 무신론자인 것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80여개의 담배를 피우고 커피, 홍차 및 술을 무수히 마셔서 겨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후 1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자신을 잊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따뜻한 오후, 그때가 1973년 5월이었습니다. 젊은 두 명의 물론 선교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라고 권유하는 사람을 몹시 싫어했습니다만 이들은 친절했으며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행복의 추구라는 영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나는 영화에서 특히 사람이 죽은 후에 영의 세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접되는 부분과 같은 그려한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교리가 참되다는 것을 힘 있게 간증 했으며, 선교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기도를 드린다면 나도 스스로 그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미심쩍은 데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다시 와서 물론경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기 전 이를 동안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들이 찾아 오면 외출했다고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일찍 와서는 나를 놀라게 했으며 방문을 피하-

려던 나를 당황케 했습니다. 리하이에 관해 짧게 공부를 한 뒤 그들은 물론경을 한 권 주고 갔습니다. 나는 읽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서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니파이일서를 읽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오자 나는 그리 교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아이들은 전에 주일 학교에 가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들 때문에 교회로 갔습니다. 가족 영적 발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관한 것이었으며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공과는 브리검 영과 일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차를 타고 오면서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에 나는 요셉 스미스의 소책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꾸며 냈을까?” 하고 의문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론경을 집어 니파이일서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나는 책을 놓을 수가 없을 만큼 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과연 죽은 뒤에도 삶이 있는가에 대해 기도로 여쭈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자정이 지나서였습니다. 나는 너무도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다시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얀 옷을 입고 태양이 밝게 빛나는, 나무와 꽃으로 둘러쌓인 아름다운 푸른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자기가 아직 살아 있으며 죽은 후에도 삶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놀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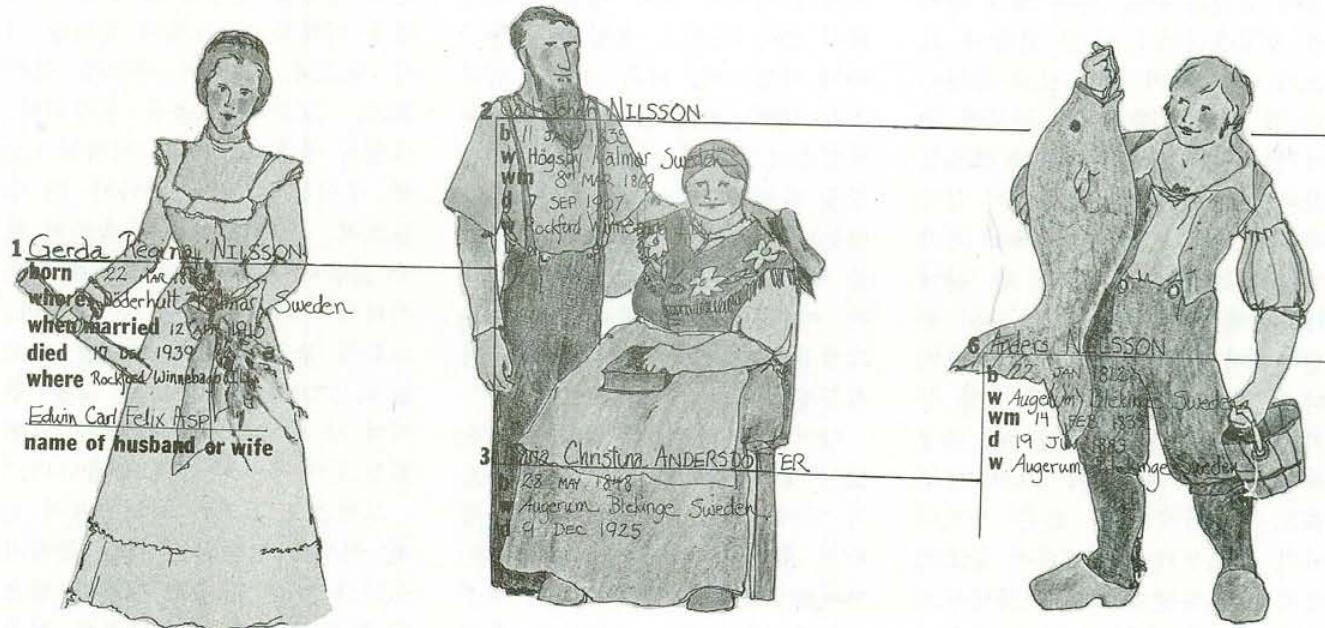
다음 날 저녁에는 물론경을 260페이지를 읽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것이 참된 것인가를 알기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방은 밝아 보였으며 어딘가 따뜻하고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몸에 불이라도 붙어 활활 타듯이 성신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셉,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고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과 같은 이름으로 선견자가 되리라는 니파이이서의 성구가 머리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이 3:14-15) 그 구절을 다시 읽고 기도를 드렸을 때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너무도 행복했기 때문에 밖으로 뛰어 나가 선교사를 찾아 이 사실을 말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선교사는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나의 이 습관을 결코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분명히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했으며 공부가 끝난 뒤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집을 나서면서 담배를 가져 갔으며 그후로는 전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나를 찾아온 지 17일이 지나서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후 나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축복사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주어진 축복의 말씀과 약속은 얼마나 내게 큰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신전에서 남편에게 인봉되었으며 자녀들은 우리에게 인봉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분명 이 일을 받아 들였을 것이며 우리를 기다리면서 매일 복을 안에서 성장하고 있을 것이라는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11:28, 30)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나는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충실히 살면 행복의 정상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게 잊었던 소망을 다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 엘리야의 영은 또한 평범한 자들을 위한 것이니

린다 케이 호프만 글, 그림



내 친구는 표지에 신전이 새겨진 두껍고 긴 하얀 책 한 권을 가져 와서 “내 기억의 책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책 속에 있는 많은 사진 중에서 올슨 프랫과 조지 큐 캐년과 우드럽, 비슬리의 사진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왕과 여왕과 공작도 있었는데 그 사진에는 간략하게 약력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죽보가 적혀 있는 책장을 넘기자 전기, 자서전, 일화, 위대한 개척자의 이야기, 요셉 스미스와의 우정 등이 적힌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 귀중한 기록을 보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책장을 넘기면서 그와 그의 과거를 한없이 부러워 했습니다. 개종자인 나는 몰몬 개척자의 후손으로서 느끼는 궁지 이른바 몰몬 유

산에 대한 실감을 느끼지 못했읍니다.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라는 찬송을 배우고 나서 비로소 나는 이 몰몬의 유산을 받아 들였습니다. 나의 조상은 유럽 어느 곳의 농부였습니다. 나의 유산으로는 자랑스러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에게 “린다, 난 네가 부러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 나름대로 공상에 잠겨 있는 나에게는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나의 친구는 책을 덮고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일은 나 이외의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며, 이 책 속의 모든 자료와 이야기와 사진은 유타주, 세인트조지에 있는 나의 사촌이 수집한 것 이야. 그러나 너는 바로 너 자신

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네가 네 조상들을 찾는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즐거운 일이니. 너는 그들을 잘 알게 될 거야!”

나는 조상들에 대해서 전에는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위대한 사람들이거나 왕족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하간 그들은 나의 조상이며, 나는 그들의 후손이니까요! 나는 자신이 부러워한 것을 뉘우치고는 엘리야의 영을 받고 가계도 용지를 손에 들고 총총결음으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나는 본인란과 부모란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했으나 나의 조부모에 관해서는 이름 이외는 아무 것도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 나는 언젠가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우리 가족에 관한 자료를 모아 둔 오래된 상자를 생각해 냈습니다. 나는 지하실에서 먼지에 쌓여 19세기의 유물 같은 냄새를 풍기는 두 개의 담배 상자가 오래된 타이어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보물 상자를 찾았습니다! 나는 철물과 호스가 여기 저기 널려 있고 곰팡이가 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 앉아 나의 선조에 관한 자료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자 속에서 나의 증조부의 사망 기사가 실린 1907년도의 신문 한 장과 1883년에 스웨덴에서 온 나의 큰 할아버지의 성적표, 약 33센티미터나 되는 나의 할머니의 금발 뭉치, 뒷면에 이름이 적힌 5대 조상들의 사진이 든 봉투, 그외 아무 것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진과 나의 증조부가 1860년대에 증조모에게 구혼하면서 보낸 스웨덴어로 기록된 편지 묶음을 찾아 냈습니다. 나는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편 이 지하실에서 눈물 어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기도할 때 나혼자만이 거기에 있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후 수개월 동안 이 보물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족들에 관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사진에 이름을 적도록 도우고 가족 관계를 알아 내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나는 옛날 스웨덴 풍속을 연구하고, 나의 가족이 살았던 지역의지도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나는 스웨덴의 민속 음악을 듣고, 언어도 공부했습니다. 또한 나는 나의 선조들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 냈습니다. 나의 외할머니는 민감하고 부지런하며 아름다운 간호원이셨고, 칼 존은 남에게 충고를

하며 변호사와 같이 분쟁을 해결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긴 수염을 기르고 계셨으며,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칼 존의 아내로 전장하고 키가 작고 충실하였으며 열심히 경전을 공부한 분이었습니다. 아그네스 시그리드 알프레다는 최초의 소아마비 면역 접종을 자진해서 받은 분으로 불행히도 불구자가 되었으며, 나의 고조부 앤더스는 1880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전장을 허락하시고 내가 이제 환영 받는다면, 나는 낚싯줄과 나막신을 만들 자료를 갖고 당신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살아 계신 나의 부모처럼 사랑합니다.

아직 가계도에 기입되지 않은 나이 남아 있지만 내가 가진 자료의 날짜와 장소를 신전 의식을 위해서 확인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해 둔 탄생 기록을 하나하나 판독기를 통해 확대시켜 보았습니다. 그 기록의 절반이 국명과 도시와 연도가 틀려 있음을 알고 하루가 지나자 마이크로필름 판독기로 인한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잘 알고 있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르다 제리나, 1880년 3월 22일생, 부—칼 존 넬슨, 모—마리아 크리스티나 앤더스터” 나는 나의 할머니의 탄생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또다시 내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몇 개의 다른 잘못된 마이크로필름을 오랜 동안 살펴 본 후 나는 조사할 새로운 명단과 확인할 모든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양식을 적은 후 그것을 검토하고 나서 내가 무척 사랑했던 이들을 위해 신전 의식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솔트레이크로 발송했습니다.

계보 탐구를 계속하면서 나는 다니엘 웹스터(미국 정치가, 1782—1852)의 다음 말을 생각했습니다.

“조상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모범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성품을 연구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 받으며, 그들의 수고를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동정하며, 그들의 성공과 승리를 기뻐함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시대에 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삶을 실제로 체험할 수도 있고, 그들이 견디어 낸 것을 견디어 낼 수 있으며, 그들이 기뻐했던 일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신권 의식의 인봉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조상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나는 엘리야의 영의 존엄성을 알고 있으며 나의 선조들을 알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신전에서 흰옷을 입고 그들을 위해서 대리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훌륭한 분이 거듭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다 케이 호프만 자매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돌아 가신(제르다 레지나 넬슨)을 대신하여 그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하노라……” 나는 그들을 대신해서 집행된 이 일을 그들 중 대부분은 받아 들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조상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거나 왕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영원히 나의 조상이며, 나도 영원히 그들의 자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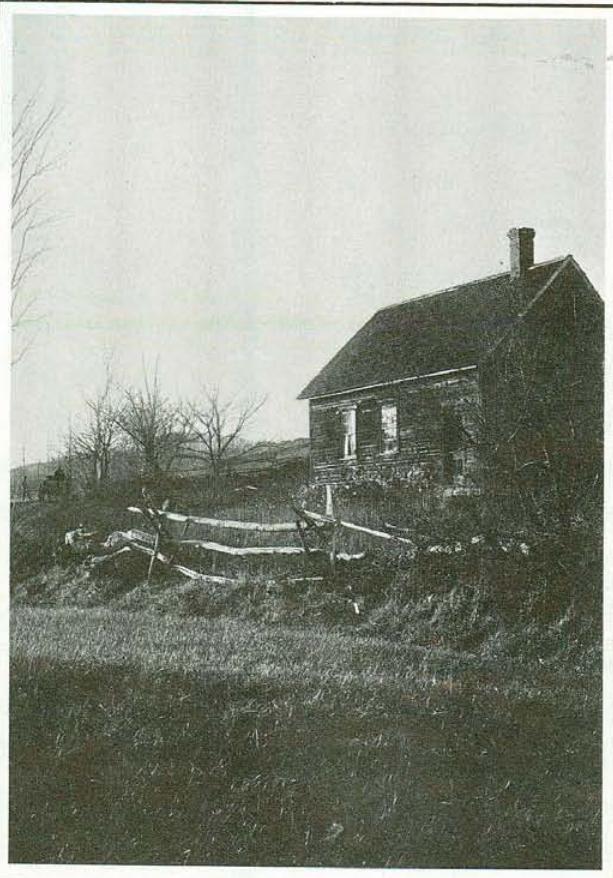
# 내 친구



1974년 8월 17일, 스톡홀름 지역 대회에서 하신 말씀  
나는 어머니에게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덴마크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번 자신의 생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또 모든 말 일정도가 알아야 할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 초기에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농사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무척 가난했었습니다. 어느날 아침 아버지는 연장 하나를 부러뜨렸습니다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용접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11킬로미터나 떨어진 브리감 시티에 있는 대장간에 다녀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해야 하는 빨래를 하시던 중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잘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읍내에 갈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빨래를 하기 위해 부엌에서 물을 네우고 계셨습니다. 침실에 있는 작은 난로 위에서도 주전자에 물을 네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빨래할 것을 옆으로 밀어 두고 불을 줄인 후 서둘러서 아이들에게도 읍내로 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대장간에서 볼일을 보시는 동안 해야 할



##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전녀 강뚝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실망하여 우는 아이들과 함께 문간에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것을 했나?” 빨래나 마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는 집안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천정은 나무나 회가 아니고 헝겊 위에 종이를 붙여 만든 것이었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동안 아버지는 마차를 준비하여 문 앞에 대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마차에 태운 뒤 마차에 올라 타려고 하다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전 오늘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 무슨 일이오?”하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글쎄요,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란 말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는 현명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 차리시고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가지 않는게 좋겠구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아버지가 마차를 타고 베어강 다리를

웁니다. 그당시 가난한 집에서는 대개 그렇게 했읍니다. 침실에 있는 작은 난로의 연통은 형겁으로 된 지붕 밖으로 나왔으며 그것에는 놋쇠로 된 둥근 고리가 끼워져서 형겁과 닿지 않게 되어 있었읍니다. 지붕 위로 나와 있는 연통은 녹이 슬어 있었으며 연통으로 나온 불똥은 지붕 밑으로 떨어져 먼지처럼 쌓였읍니다.

어머니는 집에 들어온 지 수분도 안되어 무엇이 타는 냄새를 맡았으며 곧 침실 천정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읍니다. 아이들은 펌프에서 줄을 지어 물을 날라 왔읍니다. 어머니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천정에 물을 끼얹었으며 불은 이내 꺼졌읍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으로 끝납니다.

어머니는 왜 그날 읍내에 가지 않으셨나?

우리 부모님은 가족을 부양하고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드렸읍니다. 그들은 자녀를 기르기 위해 돈을 저축하였읍니다. 그 돈은 그 작은 집에 감춰져 있었읍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은 그 작고 가난한 집에 있는 것 약간 뿐이었읍니다. 이 저축한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큰 비극이었읍니다. 덴마크 태생의 가난한 어머니는 늘 축복을 간구했읍니다. 어머니의 기도 중 한 가지가 그날 응답되어야 했읍니다. 우리의 기도는 늦게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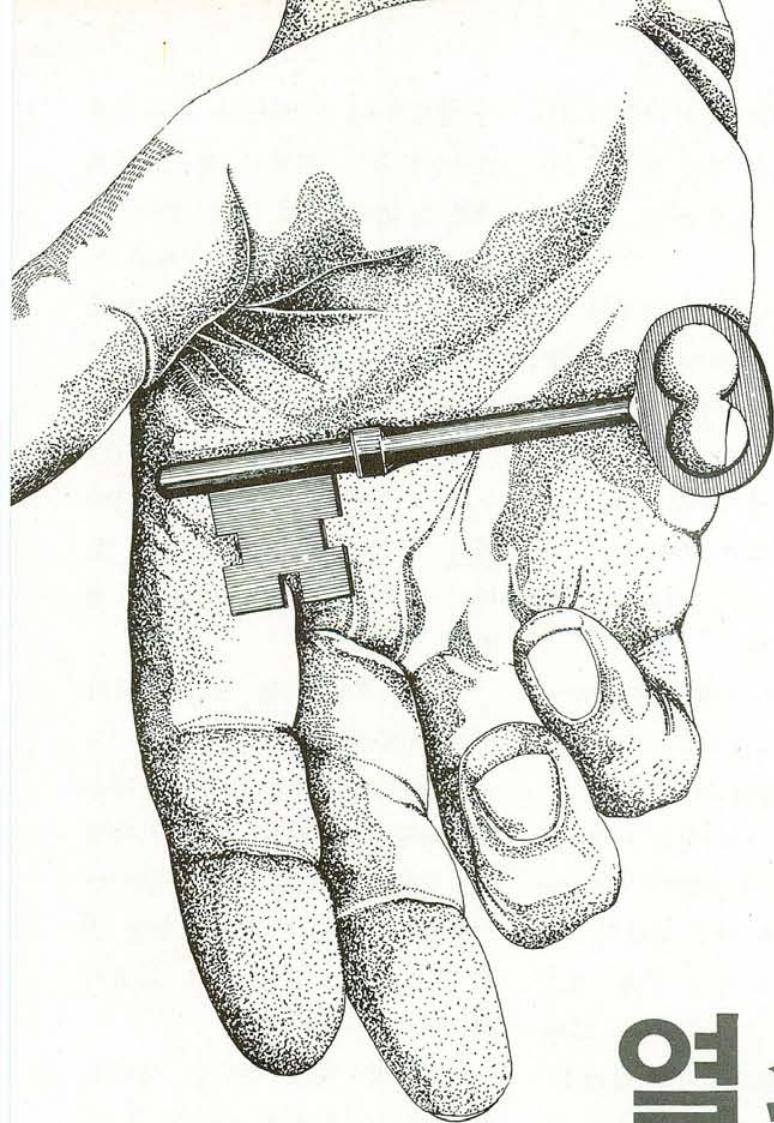
다시 왜 어머니가 읍내로 가지 않으셨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엠마야, 넌 읍내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하는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었읍니다. 아니면 “엠마야, 너는 집에 있어야 한다”하는 글로 된 메시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한 고요하고 조그마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집에 머무셨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다만,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위대한 교훈이요 또 여러분에게 권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의 인도에 따라 생활할 것을 배우십시오.



크리스챤은 감옥으로 걸어 가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이 열쇠로 감방 문을 열고 죄수에게 식사를 날라다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식사를 날라다 주는 일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열쇠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수개월 간의 공부와 기도끝에 오늘의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대부분의 죄수는 몰몬 선교사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배를 마련하여 프레드릭스테드항을 향해갔다. 그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및 덴마크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선교 지역의 해안 지방을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 배의 이름을 시온의 사자라고 했다.

크리스챤은 처음에 선교사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당시 그는 루타란 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해 갖게 되는 안수식에서 목사가 묻게 될지도 모르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기 위해 교리 문답서를 공부하기에 바빴기 때문이었다. 그는 몰몬 선교사가 프레드릭스테드에 도착하자 마자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



# 열쇠

루터란 교회는 노르웨이의 국교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선교사는 즉시 체포되어 수주, 혹은 수개월 씩 감금되었다. 이 동안 그들은 자주 법정에 끌려 나가 거의 강제로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노르웨이의 국교를 신봉하도록 강요되었다. 그것을 거부하면 그들은 감옥으로 다시 되돌아 와야 했다.

크리스찬은 간수로 일하면서 감옥에 갖힌 사람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날라다 줄 때 가능한 한 불쾌한 태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느날 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대체 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시오? 그리스도 당시에 그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한 자들을 기억 하시오.”

깜작 놀란 크리스찬은 그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선교사 두 명이 그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물론경을 주었다.

크리스찬은 매일 밤 안수식 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반면 루터란

교회의 교리 문답과 성경을 갖고 물론경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였다.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이 점점 뚜렷해지자 크리스찬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기도를 드렸다. 안수식이 있기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의로 시험에 불합격하고 6개월 후에 다시 하기로 했다. 크리스찬은 기도와 연구를 하던 지난 수개월을 생각해 보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선교사 두 명을 불러 내어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침례와 안수를 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기로 했다. 그 일이 끝난뒤 세 명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다. 노르웨이 전역에 걸쳐서 가해지는 교회 회원에 대한 박해와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노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1852년 추운 어느 겨울 밤에 있었던 그 감격적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준엄한 아버지에게 침례받은 사실을 이해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려 했

으나 들으려 하시지 않았다. 다음 안수식이 되었을 때 크리스챤은 다른 청년들과 함께 시험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갔다.

“그대는 하나님을 믿는가?” 목사가 묻는 최초의 질문이었다.

“네, 물론이죠.”하고 크리스챤은 확고히 대답했다.

“그분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다음 질문이었다.

“저는 그분이 육체와 지체와 감정을 갖고 계신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했다. “저는 또 그분이 끝없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선하시고 친절하십니다. 그는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크리스챤이 대답하는 내용에 점점 더 놀라면서 질문을 계속했다. 크리스챤은 훌끗 아버지를 쳐다 보면서 아버지가 몹시 당황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국 목사는 화가 나서 이렇게 외쳤다. “자네는 마치 물론처럼 대답을 하는군.”

“네 나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하고 크리스챤이 말했다.

이 말에 크리스챤의 아버지는 앞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는 발을 디딜 때마다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면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당황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크리스챤의 어머니도 남편을 따라 나갔다.

크리스챤은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 왔으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걱정하였다.

그날 밤 늘하던 대로 나무를 한 아름 갖고 들어와 벽난로 가에 쌓아 놓고 있을 때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크리스챤을 지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숨에 차서 그는 지팡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아버지.”하고 조용히 불렀다.  
“복음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아버지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장작개비를 들어 크리스챤에게 마구 던졌다. 장작개비가 다 없어지자 문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나가! 난 너같은 녀석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매와 장작으로 맞아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크리스챤은 광으로 가서 짚더미 위에 쓰러졌다. 남편이 잠든 뒤에 크리스챤의 어머니는 조용히 보자기에 먹을 것 조금과 크리스챤의 물건을 몇 가지 쌔 들고 광으로 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얘야 어쩌자고 그랬니?”하고 어머니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물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어요, 어머니”하고 크리스챤이 대답했다. “전 공부와 기도 끝에 이 교회가 유일하고 참되다는 것을 알-

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들으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 알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일 부인하면 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전 할 수 없어요.”

“만일 네 말대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면 넌 굽히지 말아야 된다. 얘야 허지만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먼동이 뿌옇게 틀 무렵에 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돌아 갔다. 크리스챤은 어머니가 갖다 준 작은 보따리를 들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집을 바라보고 그는 부모에게 작별을 고했다.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챤 핸스 몬슨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간증이 있다”

열네 살 된 소년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절대 그걸 부인할 수 없어 간증만 있으면 모든 게 잘 될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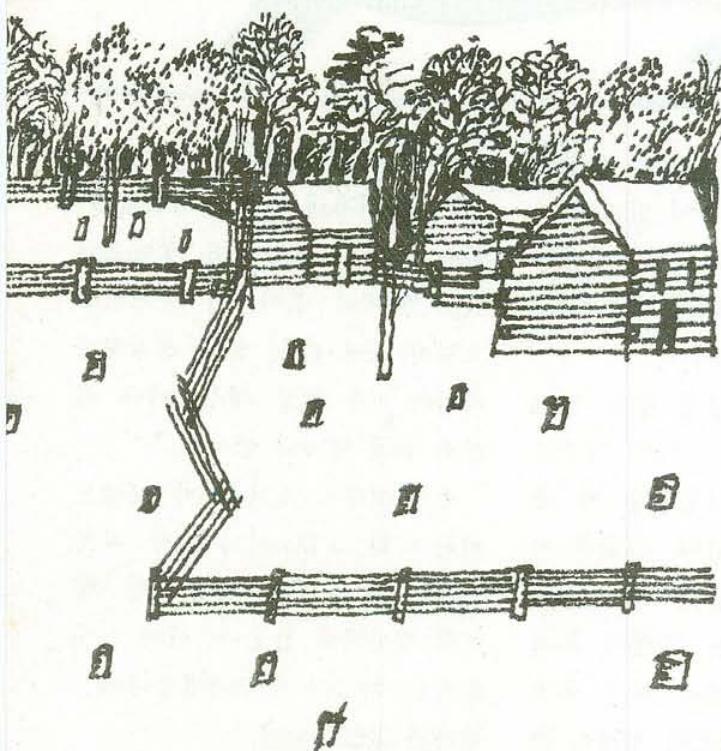


3월 12일에 포리스트 모나크 호는 미시시피 강 어구에 들어섰다. 그 배에는 존 이 포스그렌 장로가 타고 있었다. 그는 스웨덴 사람으로 요셉 신미스와 브리감 영 및 미대륙에 세워지고 있던 시온에 대한 소식을 본국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유타주에서 스웨덴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 몇몇 사람이 선교사의 말을 믿고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땅으로 왔던 것이다. 이들은 스웨덴 사람으로 교회에 개종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았다. 포스그렌 장로는 스웨덴에서 “새로운 종교”를 가르친다

## 통나무 오두막집

올리브 더블류 버트



는 이유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개종자들은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여행은 힘들고 위험했다. 그러나 이윽고 1852년 3월 12일에 그들은 뉴우오울리안즈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들은 미시시피 강을 거쳐 아이오와주 키오코에 다달았다. 그 곳에는 산과 광야를 무사히 넘어올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될 사람들이 판타주에서 와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9월 중순에 목적지에 이르렀다. 최초로 유타에 이주해 온 이들 스웨덴 사람 가운데서 몇몇은 브리감시티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1638년에 엘러웨어에 도착한 이전 이주민과 같이 통나무 오두막을 지었다. 초기 스웨덴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을 미국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건 훌륭한 생각이었다. 한 사람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집을 지을 수가 있었다. 필요한 도구라고는 도끼와, 잘 드는 칼이면 되었다. 통나무는 나무에서 잘라낸 V자형의 가지로 맞붙이면 되었기 때문에 못이 필요 없었다. 그렇게 하면 조출하고 따뜻한 집이 되며 통나무로 된 두꺼운 벽은 총탄이나 화살이 뚫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낯선 땅에서 안전히 지낼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밭을 일구었으며 소와 닭도 길렸다. 가구도 만들고 돌도 짹아 다듬었다. 여자들은 빵과 치즈를 만들었다. 그들은 멀리 타국에서 짠 털실로 예쁜 외투도 만들어 입었다. 최초로 이주해 온 이들 중 일부는 산타페군으로 갔다. 거기에서도 그들은 통나무집을 만들고 밭을 일구었다. 유타주에는 아직도 스웨덴에서 온 개척자들이 지은 통나무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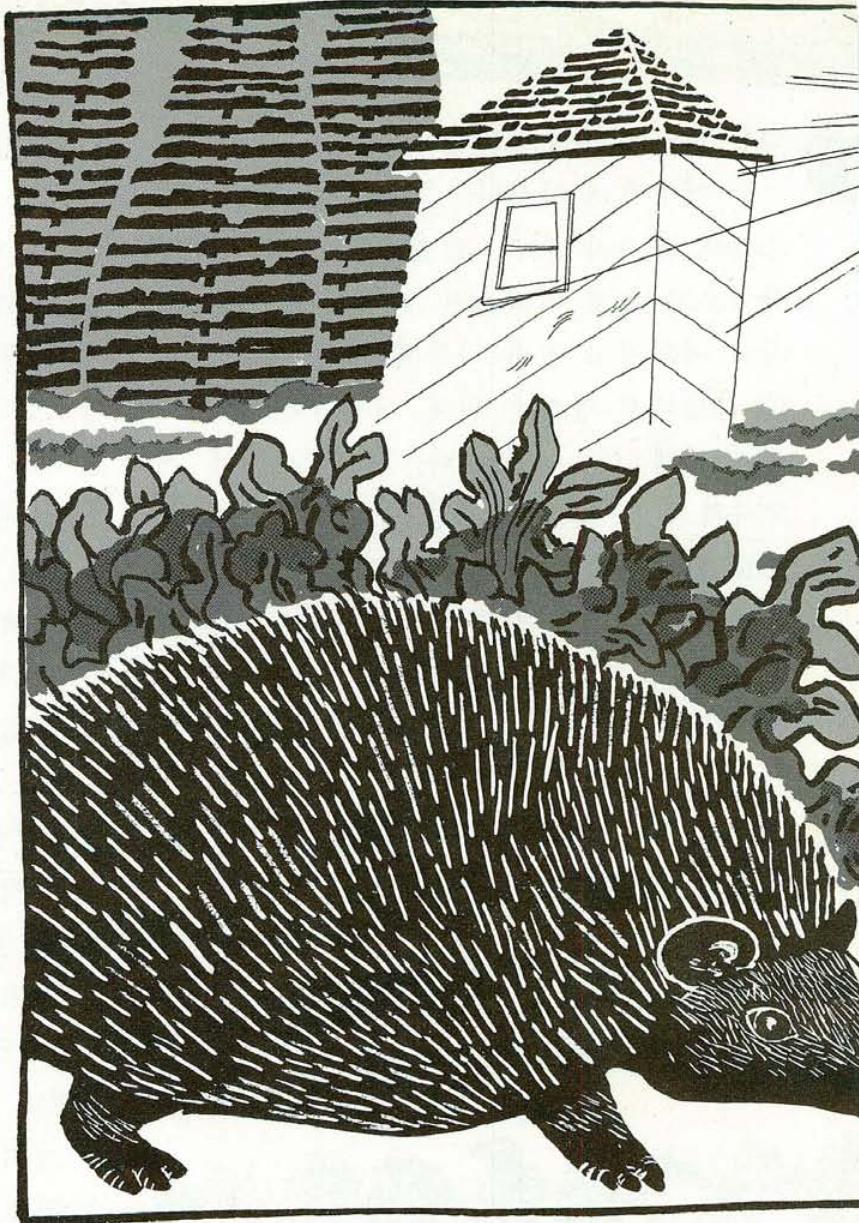
# 잠이든 실리

글 캐디 스피어즈 크리스턴슨  
그림 찰즈 월터

어느 필란드 사람의 집 뒷 틀 그늘진 곳에 커다란 사철 나무에 휩싸인 오래된 목욕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근에 고슴도치 일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늦은 봄에 어미 고슴도치는 네 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팔월이 되었습니다. 어린 고슴도치들도 춥고 긴 겨울잠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모두 어미 말에 순종하였으나 실리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새끼 고슴도치들은 잔뜩 먹고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잠을 자려 갔으나 실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둥이로 개미굴을 파헤치거나 썩은 나무를 뒤적이면서 먹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미 고슴도치는 실리를 꾸짖어 낮잠을 자게 했으나 그는 자지 않았습니다.

고슴도치가 살고 있는 곳은 헨릭슨 부인과 그의 두 아이 즉 울라와 폐카가 가꾸는 밭이었습니다. 울라와 폐카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손수 가꾼 채소를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끔 잡초를 뽑거나 무를 뽑을 때 작은 고슴도치가 머리를 위로 불쑥 내밀고는 급히 달아나곤 했습니다. 울라와 폐카는 한 마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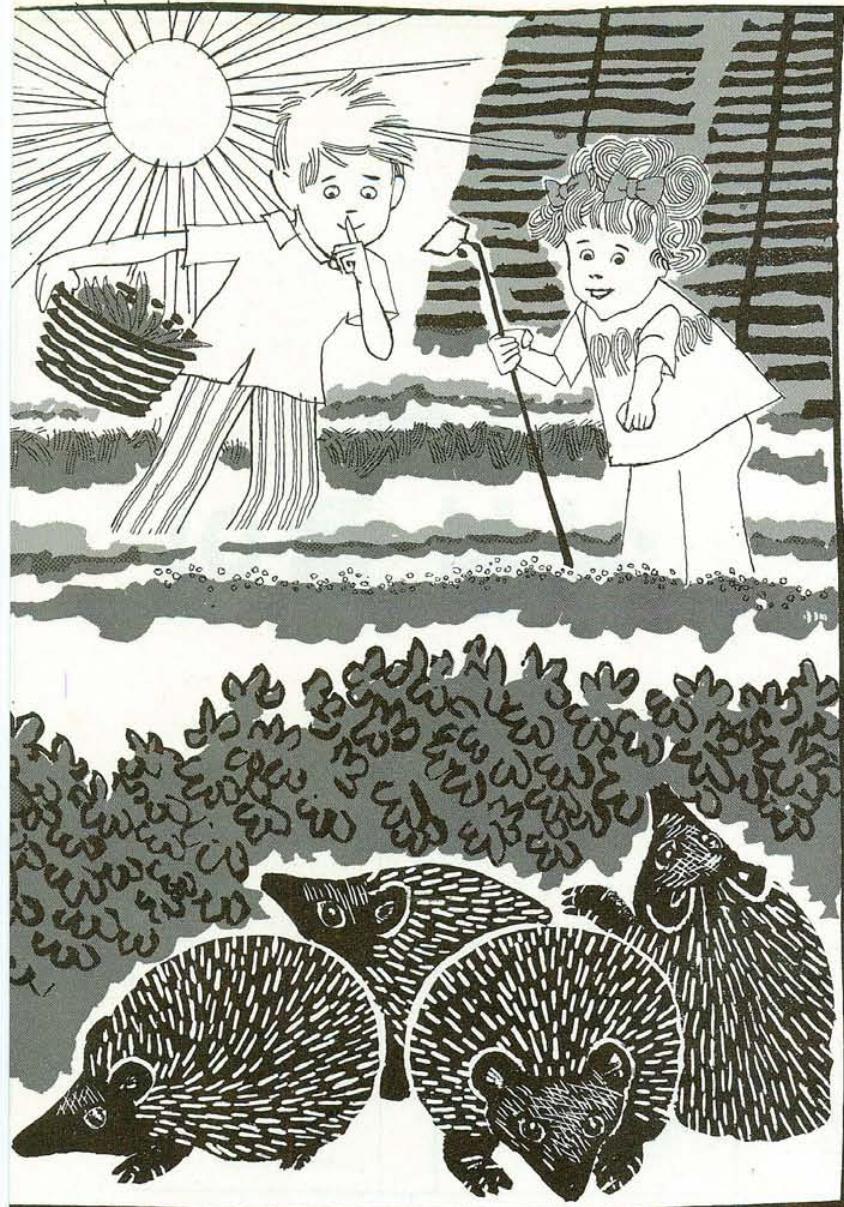
잡으려 했으나 고슴도치는 빨랐습니다. 고슴도치가 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밭에 있는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날은 점점 짙어지고 추워졌습니다. 어미 고슴도치는 새끼들에게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찌게 하고 잠자리를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겨울이 와서 눈이 내리면 그곳에서 겨울 동안 잠을 자야하기 때문에 실리는 준

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겨우내 자고 싶어해요?”하고 실리는 놀라면서 물었읍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그렇게 오래 있을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하루 종일 재주넘기나 하면서 놀면 얼마나 좋아요.”

추운 겨울이 오자 어미 고슴도치는 어린 고슴고치가 모두 따뜻하게 자는 지 살펴 봤습니다. 실리의 잠자리에 왔을 때 어미 고슴도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실리가 없었읍니다.



몹시 걱정이 돼서 어미 고슴도치는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실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들어버린 딸기 밭고랑에서 장난할 굴을 파는 실리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굴을 파는 동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리는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언 땅을 파려고 하기 보다는 어미 고슴도치의 말을 듣고 따뜻한 그의 굴에서 잠이나 잘 것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 몸을 둉 그렇게 움츠리고 코를 몸에다 파

물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집으로 가야지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곧 깊이 잠들었습니다. “페카야 여기 좀 봐!”하고 울라는 말하면서 시든 딸기잎 사이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고슴도치를 집어 들었다.

“야 새끼 고슴도치다”

“추운데서 뭘하고 있었지?”하고 페카가 울라에게서 고슴도치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물어 보자.”

집에 가서 그들은 작은 나무 상

자에 형겁을 넣고 실리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실리는 아이들이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덮어준 형겁 밑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고슴도치야,” 하면서 페카가 상자를 어머니에게 보였습니다.

“밖엔 너무 추워요. 우리가 집에서 봐 주면 어떨까요?”하고 울라가 물었습니다. “글쎄다.”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작은 고슴도치를 보셨습니다. “집에서 얼마동안 봐주는 것도 좋은데 아마 어미가 기다릴게다. 또 겨울잠을 잘 출도 있을게다. 자기 식구끼리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지 않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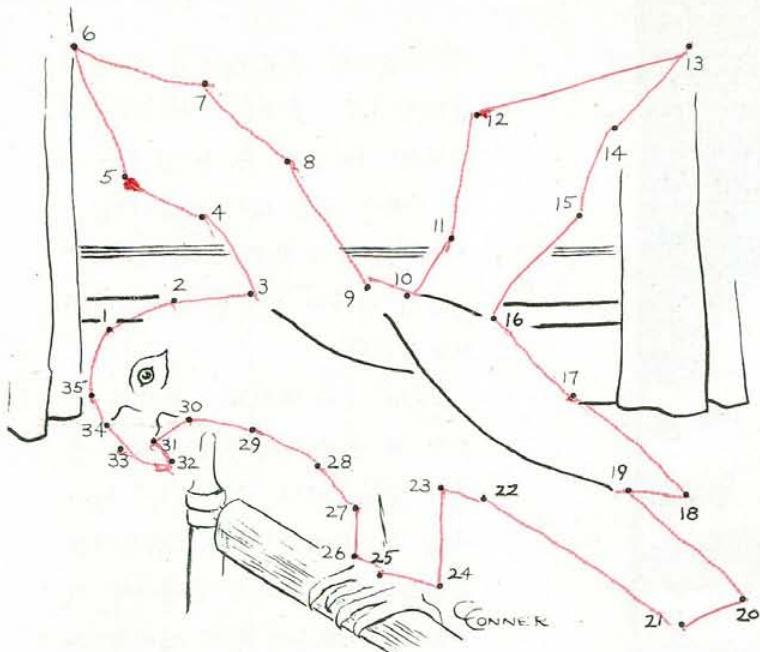
울라와 페카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어머니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실리를 털로싸 딸기밭에 다시 놓아 두었습니다.

“집에 가서 부엌 창문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하고 울라는 밭을 떠나면서 제안했습니다.

페카와 울라는 창문에서 눈내리는 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내 울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봐! 뭔가 움직이고 있다.” “저것도 고슴도치야”하고 페카가 대답했습니다.

실리의 어미가 아들을 찾고 있다가 텔웃에 싸인 실리가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쿡쿡찔러 깨워 곧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리의 어미는 봄이 오면 실리가 또 심한 장난을 하리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따뜻하고 긴 겨울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점 잊기  
캐롤 코너

1부터 35까지, 35에서 1로 점을 연결하면  
새가 됩니다. 어떤 새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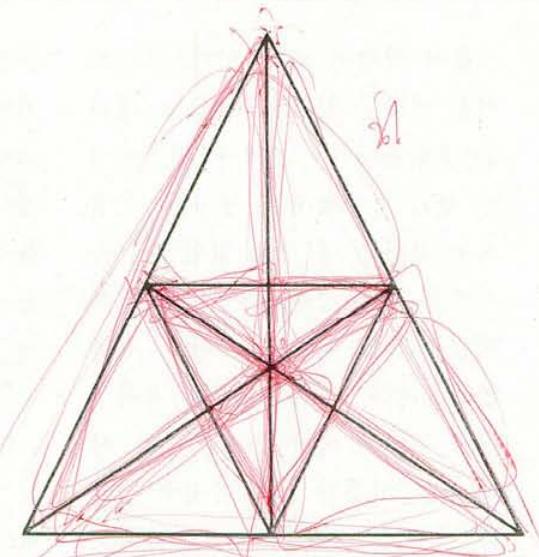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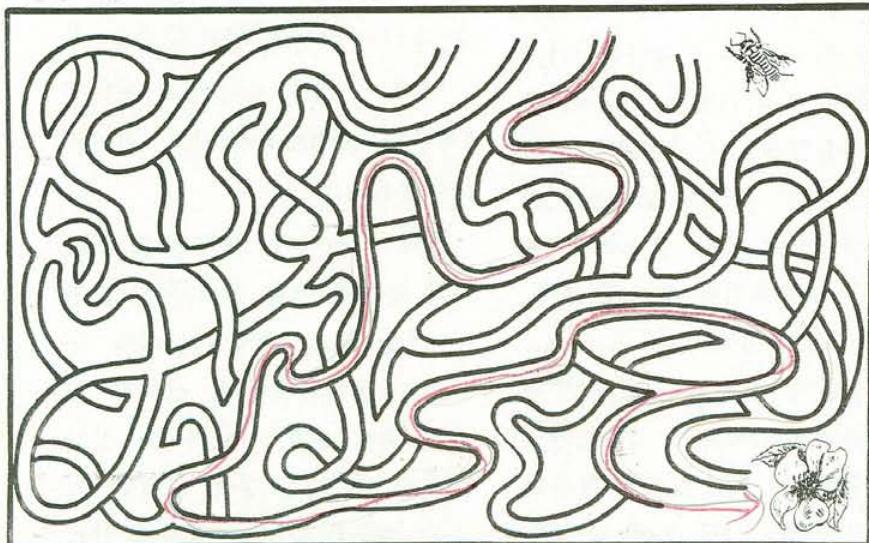


## 심심 풀이



### 꿀벌의 미로

어느 길로 가면 꽃까지 갈까요?



삼각형이 모두 몇 개일까요?

## 큰 책임

장막이 걷히고 주님께서 영들 가운데 계셨을 때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고귀하고 위대한 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아브라함 3: 23)

나는 여덟 살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대는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전능하신 분의 명을 받들어 왔노라” 계속해서 축복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자세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렇게 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마친 후에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실망을 가져다 주는 말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리그랜드야 우리는 너를 보내면서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너는 행하지 않았도다. 네가 행하지 않았으니 네 대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면 안되었느니라”

장막이 걷히고 전세에서의 상태를 볼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즉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온 고귀하고 위대한 자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자녀의 축복을 위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고 있는가



## 택함 받은 세대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를 분명케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 재능은 어떻게 활용하나?

여러분은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상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읍니다. “하나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더라”

오래 후에 그가 돌아와 종들과 회계를 했읍니다. 다섯 개를 받은 사람은 다른 다섯 개를 만들었읍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우리의 재능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다른 두 개를 얻었으며 주인에게서 같은 칭찬의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하나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갑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은 그 달란트를 그에게서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고 했읍니다. (마25: 14~30참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이라” (베드로전서 2: 9)

#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순결

스티브 질리랜드

나는 종종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사이라면 성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이 나쁠텐가?”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말일 성도라면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엡 39:5)이여서 쉬지 않고 덕으로 생각을 장식하면 주의 면전에서 신임이 두터워지게 됩니다.

(교성 121:45 참조)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스페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께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복수를 안겨다 주시며 노하시는 맹혹한 하나님”이 아니며, “그의 자녀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다. 때때로 형벌이 늦게 오는 수도 있으나 분명히 찾아 오고 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넣는 기적 131-32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 전까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심리적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내직업상 얻은 경험의 결론으로 혼전 순결을 지킬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첫째, 성적인 경험이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과 복잡하게 얹혀 있습니다. 예언자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육을 통해 우리를 고결하고 성스럽게 해 주나 페락을 위해 사용하면 우리의 양심을 파괴하고 우리를 타락시킨다고 가르쳤습니다.

김볼 대판장에서도 이렇게 설명 하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정욕에 굽하게 되면… 그들은 육체를 내맡기고 자신의 영혼을 사슬로 묶게 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일이다.”(기적을 낳은 신앙, 154페이지) 나는 지난 수년 간 많은 사람과 상담을 해 오면서 이것이 참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전에 성경험을 하게 되면 상대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즉 사람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것은 또 타인과 인간 관계를 맺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단순한 성적인 경험만을 갖는데는 시간이나 노력이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 서로의 관계가 육체적인 페락 위에 이루어진 사이라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해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우기 육체적인 페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혼이라는 문제에서도 그러한 면을 크게 중요시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면이란 결혼 생활의 한 가지 면에 불과합니다. 관심이 그 한 면에만 집착되면 다른 면은 무시되거나 하찮게 여겨져서 영원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혼전 경험에 따르는 문제는 그로 인해 결혼에 장애가 되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성경험을 하고 나서 그 느낌이 어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자존심을 잃거나 서로의 관계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피임 기구나 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임신이 극히 평범한 일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낙태로 자녀의 생명을 파괴하여 부모에게 오는 죄과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두번째로 예전 할 수 있는 문제는 장래의 결혼에 악영향을 미칠 의심입니다. “그가 진정 나를 사랑하나 아니면 쾌락 때문인가?” 부조화란 심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영적인 은사가 수반됩니다. 즉 타인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것이 그 은사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그릇된 방법으로 나타낼 때 성真是 우리에게 그의 영향력을 거두어 가시며 불안과 초조와 이기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타인과의 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혼전 경험에서 오는 혼란한 심리적 상태보다 결혼 생활을 더 빨리 파괴하는 것은 없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곧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야말로 이러한 관계를 갖은 유일한 사람일거예요.” “왜 결혼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저서에서 에블린 엠 두발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전에 경험을 한 사람은 많은 경우에 파혼을 했으며, 결혼 당시까지 순결을 지킨 사람 가운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뉴욕, 에우소우시 에이션 프레스, 1965, 52—53페이지)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파혼과 더불어 환멸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약혼을 한 사이라도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게 될 남녀는 “결혼까지 기다려서 잃게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혼전 성관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요구는 아닙니다. 자유연애를 지지하는 사람까지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꼭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성행위, 1971, 6월 51페이지) 성적인 관계가 없이도 풍요롭고 원만하게 생활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에 이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관계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파괴되어 정서적인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가 자주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데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회 학자는 혼전 성경험을 한 사람 중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안정된 감정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아 냈습니다. (개인과 성과 사회, 성과 대인 관계편 발티모어 : 더 존스 홉킨스 출판사, 1069 119쪽 27페이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은 순결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약한 사람으로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자제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혹을 피하고 주님의 영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순결을 지키기가 쉬워 집니다. 이것은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강한 욕망과 투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맥케이 대관장은 이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본질이 힘차게 외부로 나타나는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이성과

판단력도 동시에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성과 판단력을 지침으로 삼으십시오. (임프로먼트이라, 1959, 2월 78페이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 가운데 불감증과 무력 또는 다른 문제로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함께 살았다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해결책”이 우리가 피하려는 문제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많은 부부와 상담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나 그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성적인 면이 아니라 사랑과 결혼 서약의 결핍이라고 말해 주었읍니다.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의 주요 원인이 성적인 부조화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부부간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서적이고 영적인 면에 더 큰 문제가 있으며 성적인 문제는 그 증세에 불과합니다.

서로가 맷는 법적인 서약과 주님과 맷은 언약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바람직하고 원만한 인간 관계는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신뢰는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도 서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혼에 대해 서로 언약을 하기 전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부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헤어지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기다려서 잃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자제력으로 서로의 관계를 더 고상하고 깊게 할 때 결혼이 더 아름답고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순간의 격한 감정으로 남녀가 가치를 떨어뜨렸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릇된 길을 택했다고 다 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길로 돌아서면 구조될 수 있다. 그른 것은 옳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을 알아내고 그 지점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향해 되돌아 설 때 가능하며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혼, 뉴욕, 맥밀란, 1973, 6페이지)

회개는 되돌아서는 길입니다.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죄 때문에 회개하려는 사람이기가 질려서 과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심히 낙담하고 자기의 무력함을 느껴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한다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가 마음속에 메아리쳐 올 것이다.” (용서가 넣는 기적, 307페이지)

질리랜드 형제는 보스톤 마사추세츠 스테이크, 대학 지부의 지부장이며 하바드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캠브리지 신학 연구원 원장이다. 그는 베자녀의 아버지이며 상담학 박사 학위 소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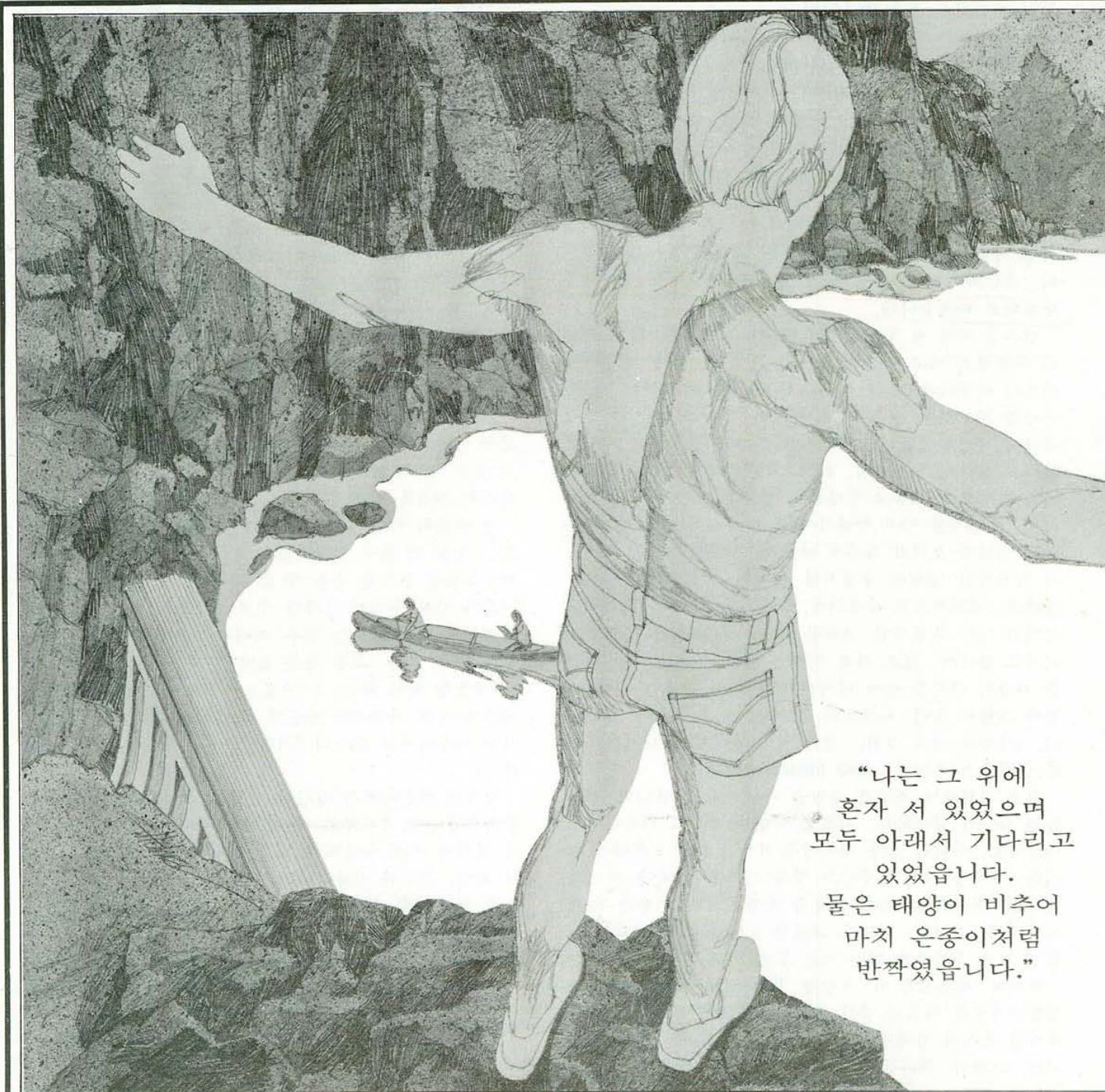
**편집자 주 :**영화 제작자요 말인성  
도인 키이드 메릴이 제작한 “더  
그레이트 카우보이”란 영화가 1975년  
최우수 기록 영화로 선정되어 아카데  
미상을 받았다. (아카데미 상은 미국  
에서 영화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의 상이다.) 상을 받으면서 그는 다음  
과 같이 감사를 표시했다.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쳐 주신 어머니와, 자신  
을 믿도록 가르쳐 주신 아버지와, 부  
모가 가르쳐 주신 것을 실행하도록  
와준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말에  
는 복음대로 생활하는 그의 철학이 나

타나 있다.

결정이란 괴로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분이 멀다하고 결정을 내려  
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에 부닥칠 때  
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  
려야 합니다. 내일 할 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할 일을 결정해야 하며 어  
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  
니다. 결정은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  
도록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해 줍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여러분의 일거 일  
동을 지켜 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영화  
에 비교하는 것은 흥미 있는 일입니다.  
이는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이 결국 선  
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그  
레이트 아메리칸 카우보이를 제작하면  
서 촬영한 필름의 길이가 160,000피트  
가 넘습니다. 그 필름을 다 보려면 약  
8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최종적으  
로 가려내어 작품을 만든 필름의 길이  
는 90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1피트의 필름을 찍기 위  
해 49피트씩을 버려야 했다는 이야기  
가 됩니다. 촬영의 비율은 50대 1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50피트의 펠름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은 1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것인든 한가지를 결정할 때 대안은 50개나 되는 것입니다. 이 50개의 문제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이며 그 하나의 선택이 인생의 영원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유의지라고 하고 놀라운 원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는 겁쟁이야!” 나는 젊었을 때 산이 많은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나는 구조원이었기 때문에 수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트 캐년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저수지로 수영을 하려 갔습니다. 맴은 가파른 바위 절벽 사이의 계곡에 있는 좁은 지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바위에 기어 올라가 저수지로 다이빙을 하곤 했습니다. 그곳으로 여러번 수영을 하러 갔었으므로 바위, 절벽 및 수심이 깊은 물의 위치를 잘 알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 용기를

겨루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한 친구가 우리가 놀 다이빙을 하는 곳에 올라가 우리를 내려다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난 너희들보다 더 높이서도 다이빙 할 수 있어 !”

“그래? 그럼 해 봐”

그래서 그는 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높이는 물에서 50피트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는 양배처럼 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 모두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내 더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릴께.”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60피트나 되는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고, 실지 않아서 나는 그의 곁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가 하는 것을 나도 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두려움을 감추더니 멀리는 물을 굽혔다 펴면서 60피트나 되는 공간을 날아 물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나도 용기를 갖고 뛰어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70피트나 되는 곳으로 기어 올라가 다시 다이빙할 자세를 취했습니다. 밑에서 나는 그를 볼 수 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어깨와 눈을 비비면서 물속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메릴 너도 해 볼래?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해야지!”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릴은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시 바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나는 이제 한 번 정도 뛰어 뛰어내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70피트나 되는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는 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이 더 높은 곳으로 올 수 없게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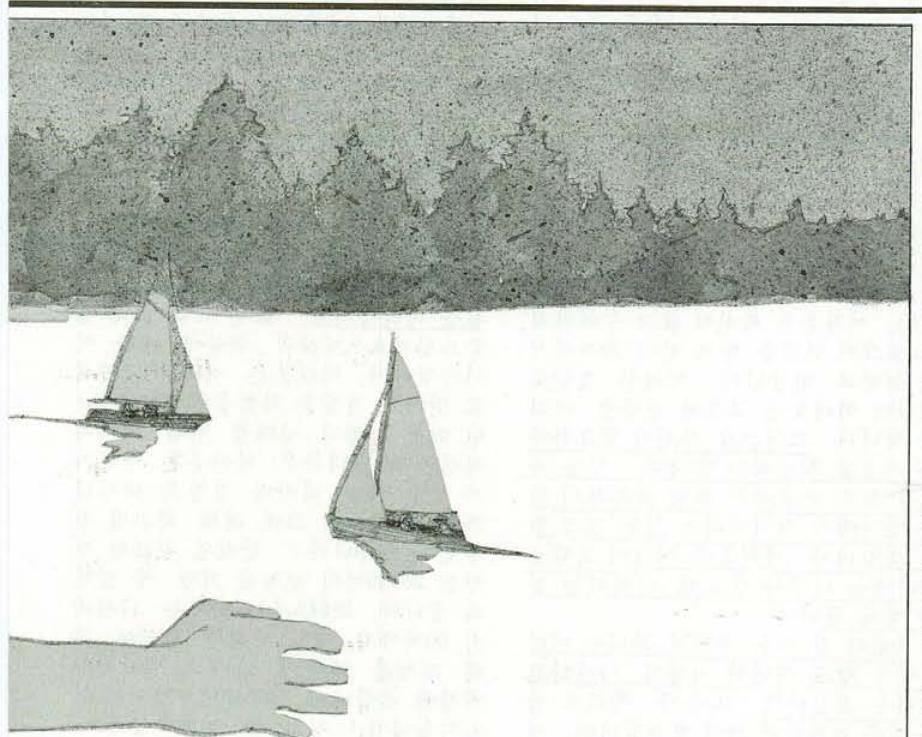
나는 80피트나 되는 언덕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주위를 돌아 보고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나는 내가 서 있는 언덕이 물에서 너무 뒤쪽으로 떨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두 가지나 되었습니다. 80피트를 뛰어 내리는 것과 아래에 있는 바위에 부딪치지 않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모두 나를 부정적인 말로 부추겼습니다.

“야, 넌 겁쟁이야! 겁쟁이야!”

나는 그 위에 혼자 서 있었으며 모두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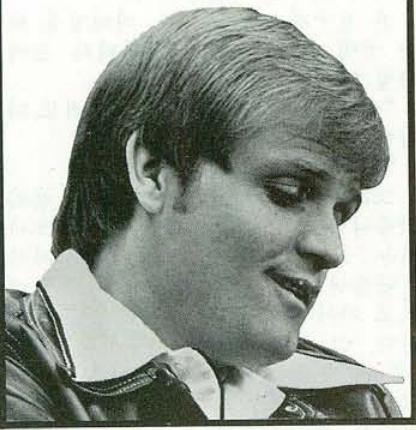
나는 두려웠습니다. 자오는 했으나 그 결정은 내가 하고 싶었서 혹은 옳다고 생각해서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그들 가운데 반 이상도 넘는 이름을 잊었지만 “야 겁쟁이,



# 결정

글 키이드 메릴

그림 에드 홉즈



네가 거기서 뛰어 내려?"하면 그들의 말 때문에 그려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나는 그 아래에 있는 바위에 부딪치지 않고 뛰어 내리기 위해서 뒤로 물러 섰다 뛰어 오면서 그 힘으로 뛰어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가 있는 힘을 다해 절벽끝으로 뛰어 왔습니다. 뛰어 오면서 나는 내가 주의깊게 표시해 둔 곳을 딛고 힘차게 점프하여 허공으로 뛰었습니다.

물로 뛰어 들면서 나는 부모와 교사가 신중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릇된 결정으로 죽음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가르친 것을 뚜렷하게 기억해 냈습니다. 몸이 물에 닿았을 때 마치 콘크리트 같이 느껴졌습니다. 80피트에서 뛰어 내렸을 때 얼마나 깊이 가라 앓는지 조차 몰랐던 나는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감사한 생각뿐이었습니다.

#### 누가 조종하는가?

자, 나는 왜 뛰어 내렸습니까?

나는 맞서기 힘든 압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하고 싶지도 않았으나 친구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압력 때문에 그일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 압력에 굴한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조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 관한 결정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 대신 결정을 내려 준 것입니다.

#### 바른 말에 귀를 기울임

그것이 결정이 내려지는 방법입니다. 결정은 우리 자신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 줍니다. 내릴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 부모, 교사 및 다른 사람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중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충고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소리는 멀리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 결정을 내려 주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다섯 가지 중요한 결정

나는 여러분이 다섯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생을 훌륭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은 서로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대여섯 가지 결정을 제언해 드립니다.

####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임

먼저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대부분 이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없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인정을 받고 받아 들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은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일단 자신을 크게 존중하게 되면 80피트나 되는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잘 쓰는 무기의 하나는 여러분에게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 목표로 삼는 것은 여러분의 자기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믿게 하면 사탄은 이미 목표의 반은 성취한 셈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심히 크다고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영상을 지니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을 스스로 향시키도록 고취할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비대하다면 비대하지 않은 자신의 영상을 생각하십시오. 너무 게으르다면 좀더 근면한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수 많은 문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문제를 갖고 있으면 자신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인간상을 생각해 두고 그렇게 되기 위해 꾸준히 생활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 단 한 번의 결정

두번째로 여러분이 내려야 할 커다란 결정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마음 든든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일단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26,645번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고통을 없애고 싶습니까? 그건 매우 간단합니다. 한번 내려야 할 결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한 뒤 결정을 내리십시오.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담배를 권할 때마다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술을 권할 때마다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면 이미 그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한번의 확고한 결정은 26645번의 결정을 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26645라는 숫자는 17세에서 90세까지 매일 지혜의 말씀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26645번, 얼마나 어리석읍니까! 지금 곧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동안 지혜의 말씀 신전 결혼, 선교 사업 및 복음의 다른 중요한 원리에 관하여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곧 교회의 표준을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나는 이미 오래 전에 지혜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정을

"여러분은 26645번의 고통을 없애고 싶습니까?"

그건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내려야 할 결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한 뒤에  
그것을 꼭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내렸습니다. 그러한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고 마침내 지치게 되었으며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결정하는 일은 몹시 우스운 일이다.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러자 그후로는 절대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더 그레이트 아메리칸 카우보이의 초연에 수천명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신문기자들에게 무엇을 대접할까요? 좋은 기사를 쓰도록 극장 현관에 간이 술좌석을 마련하여 대접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번 초연에 카테일을 대접해야겠군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제하는 이상 술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은 이미 오래 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초연이 있던 날 저녁에 사람들 이 와서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부인과 나는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현관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 왔는지 아십니까! 매리온 더 행스 형제가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으며 초대를 받았는지 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리온 더 행스 장로는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매리온 더 행스 장로가 들었을 때 현관에 온통 출잔이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면 그것은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려 바위를 둘이 받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곧 단한번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 구체적인 몇 가지 목표

여러분이 곧 내리지 않으면 안될 결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결정을 내리십시오.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키틀 대교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교회의 모든 젊은이는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들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된다는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십시오. 네번째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은 신전 결혼입니다. 다른 선택이나 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곧 신전 결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금주에 내려야 하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결정 가운데 마지막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도중  
곤경을 만나  
인생의 경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를 당할 것입니다.  
... 구두에 오물이 묻어 있는 걸 보니  
목표가 적당치 않았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의문이 생길 시기가 닥쳐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에 대하여 의아스럽게 생각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활동을 멀리하지는 마십시오. 늘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십시오. 어떤 압력을 받더라도 교회에는 꾸준히 나오십시오.

### 각오한 바대로 꾸준히 노력함

부모님께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제가 결정한 다섯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이 결정한 바를 지키겠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은밀히 약속한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약속하고 싶어요. 먼저 저는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겠어요.”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저는 먼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건 타협이 아닌가?” 그것이 타협이라면 전 결정하지 않겠어요.

“저는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혹은 저는 선교사로 갔다온 형제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신전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나는 누구와 다투었던 혹은 좋지 못한 감정이 있든 교회에는 빠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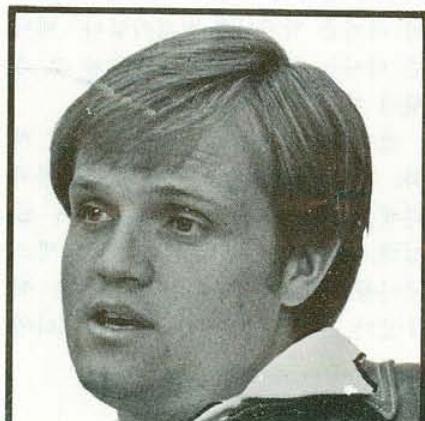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결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지켜 행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결정대로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80피트나 되는 절벽에서 뛰어 내린 다음에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경우와는 달리 내가 언급한 다섯 가지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벽에서의 점프와 같지 않고 이 결정들은 계속해서 거듭 겸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꾸준해야 합니다.

### 결심하십시오.

더 그레이트 아메리칸 카우보이를 제작하려고 했을 때 나는 편안하고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몰이 카우보이에 관한 영화가 좋겠는데” 갑자기 나는 소 한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 깨끗하거나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건너라면 구두가 말할 수 없이 더러워 집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도중 곤경을 만나 인생의 경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를 당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더욱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목표를 바꾸지 마십시오. “구두에 오물이 묻어 있는 걸 보니 목표가 적당치 않았었어.” “난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말하십시오. “더 열심히 일해야해,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 더 자주 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의 원리에 잘 따라야지” 꾸준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던 사람이 되어감을 알게 될 것입니다.



# 76년 건강 관리 전시회

“**몰**본이 이처럼 건강을 돌보는 사람들은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몰본경은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교회의 회원이 될수 있습니까?”

필리핀에 파견된 보건 선교사가 자선 활동으로 마련한 76년 건강 관리 전시회장을 찾는 사람들의 말이다. 활동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필리핀 마닐라 선교부는 전시회장을 찾아온 방문객 가운데서 800명 이상의 성인 명단을 입수했다. 이들은 비회원으로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작에 불과하다. 루손섬 전역에서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의 수는 배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76년 건강 관리 전시회는 열한 명의 젊은 보건 선교사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안해 낸 활동의 일환이다. 정부와 보건 기구에서는 이들의 계획을 알고 20여개가 넘는 보건 기구로부터 건강에 관한 지식과 인원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왔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한가지 예로 리잘 지방의 지사인 율로지오 로드리케즈씨는 전시회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특별 잔부 회의를 열어 우선 전 직원에게 전시장을 돌아보게 했다. 로드리케즈 지사는 또 직원들에게 가족을 동반하여 전시회장을 찾아 건강 관리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라고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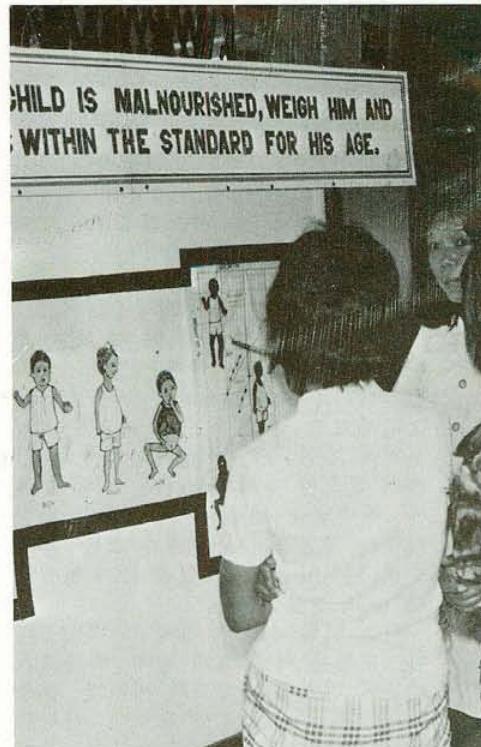
주안 마누엘 문교부 장관은 모든 학생에게 건강 관리 전시회장을 전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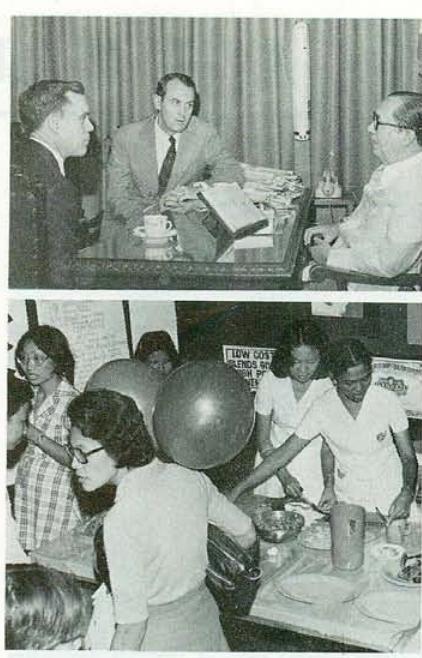
키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시달했다. 여러 시의 시장과 수백 명의 시청 직원이 마닐라 전역 여러 곳에서 열린 76년 건강 관리 전시회장을 방문했다. 전시회장을 공식적으로 개장하기도 전에 여러 다른 도시에서도 그곳에서 같은 활동을 벌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마닐라 남쪽에 있는 카비터의 에드 아르도 드 구즈맨 시장은 카비터시에 “가정 주간”을 선포하기도 했다. “가정 주간”을 제정한 목적은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영적인 건강 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주간에서 주요 행사로는 76년 건강 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관공서의 협조 이외에도 전시회를 대중에게 알리는데 보도 기관의 역할이 커졌다. 전시회장이 필리핀 마닐라 스테이크 센터에서 개장되었을 때 신문사 대표들은 이 전시장을 찾을 방문객이 오백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첫날에는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전시회장에 관해 30분 동안 특별 프로그램까지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특기할 내용은 교회 복지관에서 일하는 제임스 메이슨 및 아이작 퍼거슨 박사와의 회견이었다. 메이슨 박사는 특히 지혜의 말씀과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전시회장은 영화, 전시, 포스터 벽화, 필름스트립, 시범 및 인형극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필리핀 결핵 협회는 이동 액스레이를 활용해 주고 의료 상담을 해주었다. 아시아 하—트(심장) 센터에





서는 입불어 넣기 인공 호흡법을 시범으로 보이기도 했다.

전시회장의 한 부분은 녹색 혁명회에서 후원하였다. 이 기구는 필리핀 대통령의 영부인 이엘다 마르코스 여사가 후원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가 생긴 목적은 시민에게 돈을 저축하고 자기 집의 밭에다 채소를 심어 좀더 나은 식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서이다. 이것은 밭에다 채소를 가꾸라고 하신 킴볼 대관장의 권고와 같은 것이다. 녹색 혁명회에서는 가정에서 가꿀 수 있는 채소의 씨앗을 팔았으며 많은 와드와 지부에서는 자체 내의 복지 활동을 시작했다.

청결의 중요성, 올바른 식사 준비 및 위생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전시물을 전열해 놓은 곳도 있었다. 필리핀의 어린이 가운데 약 92퍼센트가 기생충으로 고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생충은 음식을 깨끗하게 쟁여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주부에게 영양실조와 탈수에 관해 가르쳤다. 거기서 그들은 자녀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지 않은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체중도 달아볼 수 있었다. 자녀에게 영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에게는 지방 관청이나 보건 기구 및 상호부조회 교사가 영향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주었다.

지역 보건 기구의 협조로 수천명이 클레라, 장티부스, 천연두, 결핵, 소아마비 등의 예방주사를 맞았다. 몇몇 사람의 경우에는 결핵과 호흡기 질환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그곳에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 상점 소까지 있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화, 만화, 및 인형극을 통해 건강과 청결에 대한 것을 배웠다.

마닐라 스테이크 센터에서 건강 관리 전시회를 연후에 그것은 지난 지역 대회 장소였던 아라네타 체육관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상점이 즐비한 거리의 중앙인 가닭에 3일 동안에 전시회장을 찾아든 방문자의 수는 만 오천 명이 넘었다. 겨우 일주일 만에 필리핀 마닐라 선교부에는 만 이천에 가까운 구도자가 밀어 닦쳤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전시회장은 마닐라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 다녔다. 예정표에는 피서지인 바기오우 시에서 3개월 간을 전시 할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열리는 하기 축제에서 전시회는 역시 큰 인기를 모았다. 필리핀 경찰은 많은 장비 및 전시물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제공해 주었다. 회원들은 자진해서 복잡한 전시물과, 다채로운 그림과 예술적인 포스터를 그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바쳤다. 전시회를 계획하고 협의하는 일에 참여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건강 관리를 향상시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보건 선교사, 복음 선교사, 지방부 및 스테이크 선교사와 지도자가 하나로 단합할 수 있게 해 주었읍니다.”

76년 건강 관리 전시회는 수천 명의 생활에 여러 면으로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전시회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것이며 질병이나 영양부족 혹은 기생충으로 고통을 겪는 어린이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더 나은 영양을 섭취하고 전시회에서 가르친 채소 가꾸기로 식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76년 건강 관리 전시회는 수 많은 사람에게 최초로 교회를 소개한 활동이었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미 교회 회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